전제 조건

NSAIDs(예: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등)는 골관절염 환자에서 흔히 사용하는 1 차 약제입니다. 본 기준은 복용 중 또는 복용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분류하여, 필요한 조치 수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약물 복용 시점은 단회 복용부터 1 주 이상 복용까지 포함하며, 일반적인 경구 제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1. Green (경과관찰 가능)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반응으로 특별한 의료적 개입 없이 생활요법만으로 호전이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 복용 직후 속이 약간 더부룩하거나 메스껍지만 구토 없이 식사 가능한 경우: 일시적인 위장 자극 반응으로, 공복 복용 또는 자극적인 음식 섭취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 경미한 두통 또는 어지러움이 복용 당일 내에 발생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일시적인 약물 반응일 수 있으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호전됩니다.
- **피부에 가려움증 없이 미세한 발진**이 국소적으로 나타난 경우: 약물과의 관련 가능성은 있으나 대부분 저절로 소실되며 추가 약물 복용 후 관찰이 가능합니다.
- 복용 시간 착오로 1 회 복용을 빼먹었거나 1~2 시간 이내 복용 시간 차이가 생긴 경우: 다음 복용 시점만 정확히 맞추면 되며 별도의 처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생활 조절, 복용 시간 조율, 식사와 함께 복용 안내 등을 통해 경과를 관찰하면 충분합니다.

2. Yellow (모니터링 필요)

경미한 이상반응이 있으나 심각하지 않으며,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병원 방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속쓰림, 상복부 불편감, 가벼운 식욕 저하 등이 1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위장 점막 자극에 의한 반응일 수 있으며, 위장 보호제(PPI) 병용 여부 확인과 복용 중단 고려가 필요합니다.
- 하루 2회 이상 설사가 발생했으나 발열이나 탈수는 없는 경우: NSAIDs 에 의한 장점막 자극 또는 과민 반응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과를 관찰하며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 소화불량과 연관된 경미한 체중 감소나 피로감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위장관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시경 등의 추가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복용 후 **두드러기, 홍조, 경미한 호흡 불편감**이 동반되나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 경한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이 있으며, 항히스타민제 복용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 복용 시간을 착각해 2 회 분량을 한꺼번에 복용한 경우, 현재까지 증상은 없으나 불안감이 있는 경우: 신장 기능이나 위장 출혈 위험을 점검하기 위한 진료 예약이 권장됩니다.

이 경우에는 약물 중단 여부, 증상 발생 시간대 기록, 필요 시 약물 혈중 농도확인을 포함한 추가 진료를 권장하며, 증상 변화 시 빠른 내원 안내가 필요합니다.

3. Red (응급 내원 권고)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태로, 빠른 시간 내에 병원 내원 또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복용 수 시간~1 일 이내에 **검은색 변, 혈변, 구토 시 선홍색 피가 동반되는 경우**: NSAIDs 유발 위장관 출혈 또는 궤양 가능성이 높으며, 응급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 호흡곤란, 가슴 압박감, 심한 어지러움, 실신 등이 발생한 경우: 약물 유발 아나필락시스 또는 심혈관계 이상 가능성이 있으며, 즉각적인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 복용 수일 이내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양측 하지 부종, 소변량 감소, 전신 부종** 등: 급성 신부전 또는 NSAIDs 유발 전해질 이상 가능성이 높아, 신기능 검사가 즉시 필요합니다.

- **피부에 광범위한 발진**, 물집, 통증 동반 또는 피부 껍질이 벗겨지는 반응이 있는 경우: SJS/TEN(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 의심 소견으로,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 **의식 저하, 혼돈, 반복되는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이 복용 후 수시간 내에 발생한 경우: 중독 또는 신경계 이상 가능성이 있으며, 약물 중단과 독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에게 즉시 병원 응급실로 이동할 것을 권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혈액 검사, 신장기능 검사, 위장 내시경, 알레르기 검사 등이 시행됩니다. 약물 중단은 필수이며, 필요한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